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외자계 보험사, 방카슈랑스 실적으로 희비 엇갈려

- 최근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1/4분기(2010년 1~3월) 실적에 따르면, 외자계 보험회사들 중 부동의 1위사였던 AIA가 4위로 밀려나고 하위권이었던 광따용밍생명(光大永明人壽)이 2위에 진입하는 등 순위 변동이 크게 일어남.
 - 중이생명(中意人壽), 광따용밍생명, 화타이생명(華泰人壽) 등이 AIA를 앞질러 외자계 보험회사들 중 시장점유율 1~3위를 차지하였고,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AIA는 4위에 머무르는 데 그침.
 - 이중 지난해 같은 기간 16위에 불과했던 캐나다 합작사인 광따용밍생명의 경우 광저우 지역에서 매월 10배 이상의 성장률을 시현하는 등 1/4분기 신계약 수입보험료 규모가 작년 한해 거수한 총수입보험료를 초과하면서 2위에 오르며 급성장함.
 - 텐진, 베이징, 상하이,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처음으로 시장점유율 10위권에 진입한 광따용밍생명은 특히 광저우 지역에서는 매월 10배 이상의 성장률을 시현하면서 연초 0.58%였던 시장점유율을 3월에 0.98%까지 확대함.

- 최근 광따용밍생명의 급성장은 광따은행 및 중국 주요 은행들과의 제휴를 통해 방카슈랑스 판매에 주력한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됨.
 - 전문가들은 광따용밍생명의 약진 배경으로 작년 모기업인 광따그룹이 광따용밍생명에 대한 자본금 증자 후 광따그룹 산하 광따은행 지점을 주요 판매채널로 활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음.
 - 실제로 광따은행 창구에서 거수한 수입보험료가 전체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중국 내 최대 지점망을 보유한 농업은행 및 공상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방카슈랑스에 집중시키면서 수입보험료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.

(남방도시보, 5/6)